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심윤경 소설가

우리 집은 광화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광화문에도 사람이 사느냐반문이 흔히 돌아오곤 한다. 광화문에서 사람이 산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출장을 가면 헬리콥터가 우리 집 위로 날아갔다. 헬리콥터 날아가는 소리가 상당히 커서, 대통령의 지방 일정을 모르고 넘어가기 어려웠다. 이제 청와대는 시민공원이 되었으므로 그 일도 모두 추억이 되었다.

광화문이라는 특별한 동네에 한평생 살다 보니 이래저래 정치가 일상생활 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일이 많았다. 내가 30대였을 때까지는 대통령이 한번 출타할 때마다 20-30분은 죽히 걸리는 교통 통제를 했다. 대통령의 일정만 중요하고 시민들의 스케줄이 아랑곳없던 시절이었다. 하염없이 서있는 버스 속에서 발판 동동 구르며 울화통을 터뜨리는 게 일상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VIP의 편의를 위한 광화문 일대의 차량 통제는 차츰 사라졌다. 지난 10여 년간은 대통령 출타 때문에 교통 통제로 불편을 겪은 일이 없다. 민주주의적 사고와 교통 통제 기술력이 함께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오묘하게 교통신호를 조작하고 어디선가 나타난 교통경찰이 잠깐씩 일반 차량 통행을 지도

영원한 것은 없다

하는 사이에 의전 차량은 놀라운 속도로 복잡한 도심 속을 통과한다. 의전 차량이 지나간 뒤 곧바로 일반 차량들이 잠시 빨라진 도심 통행 속도를 즐기며 그 뒤를 따른다. 이 모든 일은 1-2분 안에, 눈 깜짝할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진다.

기억하건대 2008년 광주형 사태 이전까지 광화문 일대는 도심 시위의 중심지가 아니었다. 도심 시위는 서울역, 을지로, 명동, 대학로 하는 식으로 구도심 일대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다. 광장이 생긴 이후 광화문은 시위의 메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 이후 10여 년간 광화문 거주자는 아침마다 일기에보를 확인하듯 오늘의 시위 정보를 확인하며 지내게 되었다. 시위 시간은 몇 시인지, 시위대의 규모는 얼마인지, 행진 구간은 어디인지, 버스 우회 구간과 지하철 무정차 통과 구간은 어디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곧바로 가족들의 등하교와 출퇴근에 막대한 지장이 생겼다.

코로나로 집회가 금지되어 광화문은 시위 없이 고요한 2년의 휴식기를 가졌다. 때맞춰 광화문광장은 2020년 11월부터 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쪽 보도를 연결하는 새 단장 공사에 들어갔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높직한 버스에서 현장을 넘어다 보면 광장의 모습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새로 단장되는 그곳에는 길쭉한 원형극장같이 아래로 우뚝하게 내려가는 단차 구조가 있어서 무언가 공연을 할 수도 있을 것같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중간중간에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좋은 생각이다. 공간에 나무는 중요하다. 이전에도 광화문 광장에서는 아름다운 꽃을 심고 전시회나 장터 같은 행사들을 열곤 했지만 언제나 그곳은 피약밭이었다. 피약밭이 내리쬐는 콘크리트 바다 광장의 한계는 명확했다. 그곳에서는 오랜 시간 즐거움을 유지할 수 없었다.

장마가 오기 직전 마지막으로 화창한 날을 틈타 부모님을 모시고 청와대 관람을 다녀왔다. 청와대는 묘사 어른들의 에버랜드라고 할 만하다. 아침부터 경북공역 일대에는 청와대 관람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고 길다. 보행이 불편하지 않다면 굳이 셔틀버스를 기다리지 말고 운치 있는 경북공 돌담을 따라 천천히 걸어 올라가시라고 권하고 싶다. 65세 이상이라면 경북공 입장도 무료이나 경북공을 통과해 아름다운 경회루와 근정전을 둘러보며 신문문으로 올라가셔도 좋다. 한 바퀴 둘러보는 데 대략 8000보에서 1만 보를 걸게 된다.

젊은 시절을 이 동네에서 보내신 나의 부모님은 특별히 감개무량하게 청와대를 관람하셨다. 청와대 서쪽의 아름다운 인왕산 자락에는 어린 시절 내가 살았던 옛 마을이 선명하게 보인다. 인파와 더위로 들끓는 청와대에서 나는 나의 부모님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우뚝한 청년이던 부모님은 흰 머리의 노인이 되었고, 언제나 고요하던 청와대는 시민공원이 되어 관람객으로 가득 찼고, 광화문은 그 모습을 여러 번 째 바꾸고 있다. 세월의 흐름을 광화문과 청와대라는 공간으로 절감한 날이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종교칼럼

어느 편에 설 건가?



최현열 광주 순교회 담임목사

어릴 적 편먹기 할 때 쓰는 방법이 있었는데 손바닥을 위로 아래로 내밀면서 주문 같은 걸 외치는 거였다.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어디 출신인지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지역별로 다양하다. 전라도 광주 사람은 ‘편 뽑기 편 뽑기 장끼 세요 알코르 세요’라고 한다. 나는 ‘우에시다리’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대전 지역에서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편을 나누고 나면 내 편과 네 편이 나누게 되고 마치 상대편이 원수라도 된양 이기기 위해 애를 쓴다. 사실 이기든 지든 아무런 상관도 없었는데 말이다.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소리치면 전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편먹기 한 것은 모두 무효가 되고 만다. 그래서 다음 번에도 다시 편을 찌서 해야 했다.

우리는 삶의 많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편에 속해 있어야 살아가기 편하다. 찬송가 중에 ‘어느 민족 누구네냐’라는 제목의 곡이 있다. 링컨 대통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1845년 미국 의회가 영토 확장을 위하여 맥

시코와의 전쟁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작시자인 제임스 로우웰(J.R.Lowell 1819-1891) 목사가 전쟁에 항거하는 표시로써 1845년 12월에 5행시 18절의 시를 ‘현재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시를 회중교회의 찬송가 학자인 ‘갯렛 호더’(Gorrett Hoder)가 임의로 32행으로 짧고 적당히 배열하여 8행시 4절의 찬송시로 개작한 것이다. 1절 가사를 보면 “어느 민족 누구네냐 결단할 때 이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라고 되어 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위해 그 편에서 보는 것은 어떠한가. 특하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결단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도 한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에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가는 중에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라고 자기 소개를 하는 한 장수를 만난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에게 이렇게 묻는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 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야? 우리의 원수 편이야?”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자신은 어느 편도 아니며 오직 주님의 군사령관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조아리며 자신을 부하라고 낮춘다.

지도자들이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정의라 하며 자기를 따르기를 바라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여호수아처럼 진리와 정의 앞

에 겸손해져야 한다. 누군가가 내 편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모두가 정의 편에 있게되면 모두가 같은 편이 되지 않겠는가. 이기는 편이 내 편도 아니고, 나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쪽이 내 편도 아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나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자라면 법을 지키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법규라지’처럼 법을 무시하거나 법을 악용해서 자기의 영달을 꾀하는 모습은 참으로 악한 일이다. 신앙인의 기쁨은 고상하다. 법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고, 소외되고 외면받는 이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음을 기뻐하고, 서로 돕고 협력함을 기뻐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남을 위하는 이들이 기뻐해 여길 줄 알고 상한다는 것이다.

삶의 많은 목적을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이루어 가는 데 두었으면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돈을 가지고 싶은 대로 소유 할 수 있고 쓰고 싶은 대로 맘껏 쓸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자 함은 더더욱 아니다. 법을 맘껏 지켜도 되는 자유, 선을 맘껏 베풀어도 되는 자유,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이해해 주고 싶은 자유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도자나 선생들의 몫이다. 어느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나라, 내가 국민인 나라에서 만큼은 그랬으면 좋겠다.

社說

민선 8기 개막...민생 살리는 주민 중심 자치체를

민선 8기가 닳을 올렸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오늘부터 일제히 4년 임기를 시작한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대다수 지자체는 ‘혁신과 도약’을 모토로 지방시대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겠다는 각오다. ‘내 삶을 혁명하는 새로운 광주 시대’를 표방해 온 강기정 광주시장의 당선 이후 광주의 목소리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힘을 쏟았다. 자산 나들목(IC) 개통, 여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 5대 과제에 대한 연립까지 해결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신경제 지구와 신활력 특구 육성으로 광주 ‘신(新)경제 지도’를 그려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영산강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제선에 성공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도약! 전남 행복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반도체-해상풍력-에너지-바이오-우주항공 등 지역 전략 사업을 토대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시도민은 강 시장과 김 지사가 민선 7기와 달리 시도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반도체 산업 유치와 광역교통망 확충, 경제·생활권 통합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까지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수 정권 출범 등 정치 환경 변화는 민주당 일색인 지역의 행정 운영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전북을 포함한 호남 시도 간 행정 단위를 뛰어넘는 초광역 협력으로 경쟁력과 동반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경제 위기의 격랑 속에 출범한 민선 8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에 빠진 민생경제의 회복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와 물가 안정 등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맞춰 주민 참여 확대 등 주민 중심의 풀뿌리 자치 정착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광주 연극계 성폭력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몇 년 전 국내 문화예술계를 뒤흔들었던 ‘미투’(#me too)가 광주 연극계에서도 터져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 극단 대표 등이 연극 배우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광주 지역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 해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그제 광주지방법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광주 지역의 모 연극 극단 대표 등이 신인 배우로 활동했던 김신하(가명) 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자행했고, 연극 배우 서주영(가명) 씨도 이들 중 한 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지목한 가해자들은 광주 모 극단 대표 A씨와 그의 아내이자 연출가인 B씨, 다른 극단의 대표 겸 배우 C씨 등 세 명이다.

김 씨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7년 간 대표 A가 ‘너를 키워 줄 수 있다’는 말

로 꾀어 성폭력을 했고, C씨도 술을 자주주며 자신을 집으로 불러 성폭력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B씨는 남편의 성폭력을 김 씨와 동의 하에 가진 상관계라고 단정 짓고 간통죄로 신고하겠다고 김 씨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서씨도 공연 후 술자리에서 대표 A가 자신에게 잘 보이면 좋은 배역을 주겠다고 성폭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문화도시를 자부하는 광주에서 이처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특히 극단 대표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신인 연기자들에게 성폭력을 자행한 것은 너무나 악랄하다. 계 대표 배우 서주영(가명) 씨도 이들 중 한 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지목한 가해자들은 광주 모 극단 대표 A씨와 그의 아내이자 연출가인 B씨, 다른 극단의 대표 겸 배우 C씨 등 세 명이다.

김 씨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7년 간 대표 A가 ‘너를 키워 줄 수 있다’는 말

기 고

50+ 세대의 ‘웰 얼론’(Well alone)을 위하여



명혜영 광주시민인문학 대표·문학박사

당사자주의란 말이 있다. 50+ 세대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지점에 당사자주의, 즉 당사자 인권관의 관점이 필요했다. 50+ 인생에 대해,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고 호소하는 작가도 있고, ‘저도 중년은 처음입니다!’라고 걱정 반 기대 반을 드러내는 작가도 있다. 여기에서 50+ 세대의 당사자인 필자가 새롭게 고민하는 지점은, ‘혼자서도 잘(Well alone)’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필자를 비롯해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재조명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기실 50 이후에는 지금까지의 삶을 결정해 왔던 기성의 가치관이 새롭게 바뀌는 대전환기에 놓인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는 ‘관계’에 대한 재고로 이어진다. 이렇듯 50+ 시기에는 삶의 형태와 질이 달라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하는 항목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나 혼자 산다’ 즉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이 매스컴의 관심

주제로 떠오른 지도 오래다. 여기에서 1인 가구 증가의 최대 원인이 이혼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최근 한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27.8%를 차지해 더 이상 특이한 삶의 형태가 아니다. 급격한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1인 시대 도래를 예고하였다. 더욱이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나 혼자 산다’ 가구는 600만을 돌파, 열 가구 중 세 가구가 1인 가구라는 것이다. 이 중 남자가 208만 1000가구로 56.7%, 여자가 158만 1000가구로 43.3%를 차지하였으며, 이 가운데 60%는 평생 1인 가구로 살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1인 가구는 왜 증가하는가? 또한 왜 중장년층이나 고령자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의 중년은 1998년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일상이 붕괴되어 경제적으로 파탄난 가정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의 결속력은 느슨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혼으로 이어진 데 원인이 있다.

한편 1인 가구의 리스크를 짚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50+ 세대의 1인 가구가 안고 있는 리스크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빈곤. 2인 이상 가구라면 일자리를 잃거나 장기 입원을 할 경우에 다른 배우자가 어떻게든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1인 가구는 불가능하다. 둘째로 수발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의 리

스크이다. 1인 가구는 수발이 필요할 경우에 의지할 수 있는 동거 가족이 전무하다. 셋째는 사회적 고립. 가령 독신자 열 명 중 두 명은 2주에 한 번 정도밖에 대화를 하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고립 상태가 심각하다. 이러한 변화된 삶의 형태는 뉴 비전의 사고력과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개인’으로서의 반성과 성찰을 위한 지적 충동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시민 인문학 강사인 필자는, 위와 같은 결론에 따라 ‘혼자서도 잘(Well alone)’ 사는 법을 평생학습의 주제로 고민해 보았다. 1인 가구인 50+ 세대는 고립감이 깊어지고 자칫 우울증으로 이어져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엄중히 보고 하루빨리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인문학이 필요하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다양한 인문학 동아리 모임을 만들고 당사자들의 니즈(needs)에 맞춘 인문사회 학습과 이를 심화할 수 있는 장기적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해야 한다고 본다.

향후 우리 사회의 인문학은 이러한 당사자 인권 학습을 통해 ‘개인’을 회복하고 ‘타인’을 공감하는 인문적 관점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또한 새로운 표준이라 할 수 있는 1인 가구의 개인이, 사회적 요구에 맞춘 ‘웰 얼론’(Well alone)한 삶을 추구하며 관계를 재정립하여 성숙한 공동체 구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無等鼓

진짜보다 가짜를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다. 바나나가 들어있지 않은 바나나 맛 우유를 좋아하고, 커피보다 커피 향에 색소를 섞은 음료를 즐겨 마시는 등. 포도밭 사진을 찍을 땐 약간의 포도산을 더해가 잘 찍었다는 말을 듣는다. 이렇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하거나 진짜와 가짜를 섞어 더 진짜같이 만든 것. 일반적으로 더 원본 같은 복제 이미지를 ‘시물라크르’(Similacre)라고 한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모방인 현실을 시물라크르로 보고 가치 없는 것이라 했지만 사회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시물라크르야말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에서 물건의 기능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시물라크르. 즉 상품의 이미지와 상품 속에 들어있는 환상이다.

기업은 광고를 통해 상품에 특정 기호를 부여하고, 이 기호 이미지는 상품을 새롭게 창조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광고 속 기호를 보며 상품을 소비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살 때 운송수단이라는 상

품 본래의 가치보다 부착된 기호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고 타인과의 ‘차별성’을 소비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옷과 신발 그리고 가방까지 명품으로 치장하며, 특정 브랜드의 커피를 마시면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이라 여긴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소비를 통해 증명하고 싶어한다.

시물라크르가 차고 넘치는 것은 유튜브 브 세상이다. 이곳에서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자신의 정치 상황에 따라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된다. 문제는 이 욕망의 세계에 영감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와 이미지는 이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두툼한 정책 공약집보다 한 줄짜리 공약이, 비리 의혹보다 연출된 사진 한 장의 힘이 더 세다는 것은 지난 선거에서 여실허증 명됐다. 다만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능력과 공약보다 이미지를 소비하면 그에 대한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유재관 편집담당 1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b>金汝松</b>	논설실장 <b>程厚權</b>	편집총괄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42 전 납 본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